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도자료	보다나은 정부

2019년 5월 9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5. 8(수) 오후 14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5. 8(수)	담당부서	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과
담당과장	이재식 과장(044-203-4530) 이석래 과장(02-2110-2350)	담 당 자	우석중 사무관(044-203-4532) 최선혜 사무관(044-203-4533) 김애화 사무관(02-2110-2365)

First-Mover형 기술개발 전략 추진

- 산업부-과기정통부, 「G-First (글로벌 초일류기술개발) 사업」 공청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손을 맞잡고 **미래 산업에 필요한 원천·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도전적 R&D를 추진**하고자 「**G-First (글로벌 초일류기술개발) 사업**」을 공동 기획중이다.

○ 양 부처는 기획중인 **G-First 사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5.8(수) 14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 동 공청회는 산학연 전문가 등 200명이 참석하여 사업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 국가 R&D 방향성에 대한 패널토의가 이루어졌다.

< **G-First 사업 공청회 개요** >

- **일시/장소 :** '19. 5. 8(수) 14:00~15:40 / 대전컨벤션센터 3F 컨퍼런스홀
- **구성** : ① 「G-First (글로벌 초일류기술개발) 사업」 주요내용 발표,
  ② 미래 산업에 필요한 원천·핵심기술의 확보 및 산업계 확산을 위한 국가 R&D 방향성에 대한 패널 토의
- **참석자** : 산업부·과기정통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연구재단, 산학연 전문가 등 200명

1. 「G-First (글로벌 초일류기술개발) 사업」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및 개요 】

□ 「G-First(글로벌 초일류기술개발) 사업」은 우리 기술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추격형(Fast-Follower) 전략에서 벗어나 선도형(First-Mover)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 더불어, 그간 정부 R&D가 **성공을 담보로 하는 과제에 치중**하고, 연구 성과의 축적과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과 산업의 수요에 부흥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 정부 전체 R&D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R&D 주무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가 손을 맞잡고, 선도형 전략 추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 사업명칭은 G-First(글로벌 초일류기술개발)로 G는 Global, First는 First-Mover로서 초일류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산업을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 초일류 기술개발을 위한 세부전략으로 ❶초고난도 기술개발(알키미스트), ❷세계 수준의 핵심·원천 기술개발(기술창출형), ❸산업 핵심 기술개발 축적(공급기지형) 등 세가지 세부사업으로 기획되었다.

○ 또한, 대규모, 중장기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용은 총 **2조 3천억원 규모**(산업부와 과기정통부 공동 부담)이고, '21년부터 '35년까지 **15년간 지원** 계획이다.

【 사업 세부내용 】

□ 사업 지원유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된다.

❶ **(알키미스트)** 과학·산업계 난제에 도전하는 "알키미스트형"은 도전적 R&D를 통해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이끌고, 도전 과정에서 전후

측방 연관기술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❷ **(기술창출형)**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창출형"은 산업계의 장기 수요를 반영하여 관련 분야에 파급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 7년 지원 종료 후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이어달리기를 통해 산업부에서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❸ **(공급기지형)**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축적과 지속적 기술공급이 가능한 기술거점센터를 육성하는 "공급기지형"은 특정 기술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횡단형 기술군(Cross Cutting Tech) 또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수요가 지속되는 기술 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 특징 】

□ 동 사업은 **초고난도 과제**에 도전, **경쟁형 토너먼트식 R&D**, **스몰베팅-스케일업 방식***, **프라운호퍼식 지원****이 적용된다는 점 등에서 **기존 사업과는 차별성**을 띄고있다.

* (스몰베팅-스케일업 방식) 초기 다수의 연구자에게 과제수행 기회를 제공하고, 점차적으로 산업계 수요에 부합한 과제로 압축하여 지원 규모를 키워나가는 방식

** (프라운호퍼식 지원) 연구소·대학의 사업화·기술이전 성과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원

□ 또한, 旣 개발된 과기정통부 연구성과를 산업부 과제 기획단계에서 활용하거나(기획연계), 동 사업에서 연구 완료된 과기정통부 과제를 산업부에서 이어받아 수행하는(성과연계) 등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

□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5.14일 예비타당성 대상선정심의(기술성평가)에 신청할 계획이며, 대상선정 이후 본 심사는 6개월 가량 소요되고 올해 말에 사업 시행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2. 공청회 관련

□ 이 날 공청회에서는 사업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 이외에도 **국가 R&D 방향성에 대한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 패널토의에서는 **정부의 도전적 R&D 수행 당위성**,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한 부처 간 연계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 이날 참석한 **정병선 과기정통부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사업을 통해 부처 간 성과 연계가 이루어져 **기초·원천 연구 성과들이 산업계에 빠르게 확산**되어 정부 연구개발(R&D)이 한 단계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산업부의 김현철 기술융합정책국장**은 "정부 R&D 절반을 차지하는 양 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공동으로 기술혁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우석중 사무관(☎ 044-203-45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김애화 사무관(☎ 02-2110-23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G-First (글로벌 초일류기술개발) 사업」 공청회 개요

□ **추진 배경**

○ 산업부-과기정통부가 공동 예타사업으로 기획 중인 「**G-First (글로벌 초일류기술개발) 사업**」 내용 발표 및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19.5.8(수) 14:00~15:40 / 대전컨벤션센터 3F 컨퍼런스 홀**

○ **참석대상** : **산업부・과기정통부(공동 축사)**, 산기평, 연구재단, 산학연 전문가 등 200여명

□ **행사 구성**

○ (**사업 발표**) 「**G-First (글로벌 초일류기술개발) 사업**」 **주요내용 발표**

○ (**패널토의**) 미래 산업에 필요한 **원천・핵심기술의 확보** 및 **산업계 확산**을 위한 **국가 R&D의 방향성** (부제 : 도전과 축적을 위한 R&D)

< 세부 계획(안) >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4:00~14:10 (10')	▪ **축 사**	
14:10~14:40 (30')	▪ **신규사업 주요내용 발표**	
14:40~14:50 (10')	coffee-break (장내정리 - 패널토의 준비)	
14:50~15:30 (40')	▪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도전과 축적을 위한 국가 R&D의 방향성)	산학연 전문가 6명